

看護系 學生과 非看護系 學生의 感情移入 能力에 關한 研究*

崔 仙 荷

(漢陽大學校 大學院 看護學 專攻)

I. 序 論

1. 研究의 必要性

現代 看護의 傾向이 人間中心으로 變해감에 따라 人間을 看護하는 看護員의 完滿한 人間性이 重要하게 擡頭되고 있다. 더욱이 從來의 追從的 病院醫療 行爲에서 벗어나 相談的 醫療行爲로 發展되어가는 過程에서 對象者는 醫療行爲에 直接 參與 하기를 願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人間關係 增進을 위한 技術이 要求되기 시작하였다.

看護는 健康問題에 異常이 있어 이에대한 解決이 必要한 患者와 도와주어야 할 看護員과의 相互作用을 通한 人間關係 過程으로서 人間關係 그 자체는 중요한 看護仲裁道具가 된다.

Gazda(1977)¹⁾는 돕는 조건(helping condition)으로 感情移入(empathy), 尊重(respect)과 溫情(warmth)을 強調하였으며 돕는 技術의 하나인 感情移入(empathy)은 看護에서 必要한 主要要素로서 認定되고 있는데 Carkuff(1969)²⁾는 感情移入이 없다면 도움을 위한 根據가 없는 것이라고 主張하였다.

對象者와의 感情移入을 擴大시킬수 있는 것은 現代 全人看護의 要求로서 疾病으로 인해 오는 急擊한 心理的 打擊을 理解하고 精神의 傷處를 治癒하는 看護員의 役割을 다할 수 있게 된다. 돕는 行爲는 資質程度에 따라서 더 促進될 수 있으므로 看

護員은 돕는 技術을 向上시킬 수 있도록 努力해야 하며 看護 教育者 및 看護 行政者는 이에 대한 評價와 教育에 中대한 關心을 두어야 한다.

感情移入에 關한 先行研究는 우리나라의 경우 金³⁾의 研究가 唯一한 것이고, 外國의 경우 感情移入의 本質⁴⁻⁵⁾, 治療의 道具로써의 感情移入의 效果⁶⁻⁹⁾, 感情移入 측정도구 開發에 대한 內容¹⁰⁻¹³⁾을 다루어 왔으며, 感情移入 能力은 開發될 수 있고, 이는 看護教育過程 및 臨床實務教育에서 活用되어야 한다는 報告가 있다.¹⁴⁻¹⁵⁾

한편 Eggert(1975)¹⁶⁾, Kahn(1979)¹⁷⁾은 看護大學生들에게 表現役割(expressive role)이나 相談役割(counselor role)을 學習시키는 것이 看護教育者의 重要課題中的 하나임을 強調하고, 이러한 對人關係技術을 治療의 目的으로 使用할 수 있도록 教育시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꼭 이루어져야 할 必需的인 課題라고 強調하였다.

看護狀況에서 感情移入은 親密한 意思疏通, 수혜자에 대한 더 깊고 完전한 理解와 評價를 갖게 하며 돕는관계(helping relationship)를 增進시키기 위한 手段이 되므로 感情移入에 關한 教育 內容을 看護員에게 學習시키는 것은 수혜자의 問題를 理解하고 解決해 주는 個別的 看護를 遂行하기 위해 必要하다고 본다.

따라서 本 研究는 未來의 看護員이 될 看護學生들의 感情移入 能力을 把握하고, 學年에 따른 感情移入 能力의 變化를 살펴봄으로써 바람직한 看

*1986년도 한양대학교 대학원 간호학 전공 석사학위 논문임.

護敎育의 基本資料를 類推해 보자는데 意義가 있으며, 看護員이 效果的으로 感情移入化 하는 過程에 關여할지 모르는 親愛欲求라는 概念을 追加시켜 感情移入 能力과 親愛欲求간의 關係를 調査하고자 하였다.

2. 研究의 目的 및 假說

本 研究는 看護系 學生의 感情移入 能力을 알아 보기 위함이며 다음과 같은 具體的인 目的을 갖는다.

1) 看護系 學生과 非看護系 學生間에 感情移入 能力에서 差異가 있는지 알아본다.

2) 看護系 學生의 경우 1,2,3,4학년 集團에서 感情移入 能力에 差異가 있는지 알아본다.

3) 感情移入 能力과 親愛欲求間의 關係를 알아본다.

4) 感情移入 能力과 親愛欲求에 影響을 미치는 諸 特性을 파악한다.

이러한 研究目的 1), 2), 3)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假說을 設定하였다.

제 1가설: 간호계 학생은 비간호계 학생에 비해 感情移入 能力이 높을 것이다.

제 2가설: 간호계 학생에서 학년이 올라 갈수록 感情移入 能力이 높을 것이다.

제 3가설: 感情移入 能力과 親愛欲求間에 肯定的인 相關關係가 있을 것이다.

3. 用語의 定意

1) 看護系 學生

우리나라 看護敎育過程에서 敎育받고 있는 학생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서울 市內에 所在한 4 年制 大學과정 2 개大學에 在學中인 看護學科 女大生을 말한다.

2) 非看護系 學生

우리나라 4 年制 大學과정에서 간호敎育 過程에 있는 학생을 제외한 大學學生으로 본 연구에서는 간호계 학생이 抽出된 大學의 自然系列 學科에 재학 중인 女大生을 말한다.

3) 感情移入(empathy)

다른 사람의 感情과 그 感情의 意味를 精確하고 민감하게 認知하고 意思傳達하는 能力을 말한다.¹³⁾¹⁸⁾¹⁹⁾ 이는 Hogan²⁰⁾이 製作한 感情移入 척도를 번역하

여 측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感情移入 能力이 높은 것으로 推定한다.

4) 親愛欲求(need-affiliation)

個人이 他人과의 人間關係에서 친근한 情에 기울어 지는 傾向을 의미한다.²¹⁻²²⁾ Mehrabian²³⁾의 친애척도를 차²⁴⁾가 번역한 것을 縮小하여 사용한 金²⁾의 것을 이용하였으며, 측정점수가 높을수록 친애욕구가 높음을 나타낸다.

4. 研究의 制限點

연구대상자 選定이 서울 시내 4 年制 大學 2 개 校에 限定되었으므로 本 연구결과를 간호계, 비간호계 학생 전체에 擴大 解析할 때는 慎重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II. 文獻考察

1. 感情移入

感情移入이란 다른 사람의 役割을 취하여 그 役割을 마치 자기 것인양 經驗하는 能力이다.⁵⁾¹⁹⁾²⁵⁾ 이 定意는 感情移入의 内部 精神的 차원에 着점을 둔 것이지만, 內的 이해에 대하여 外的 의사 소통이 일어난 對人關係의 차원도 동등하게 照明하고 있다. 또한 “한 개인(a helper)이 다른 한 사람(a helpee)의 感情과 經驗을 이해하게 되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成功的으로 그러한 이해를 그 사람에게 전달하는 過程(process)”이라고 할 수 있다.²⁶⁾ 도움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은 各自 區別된 存在(seperate human being)이므로 感情移入을 가장 잘 할 경우 상대방의 感情에 상당히 近接할 수 있다는 점에서 感情移入이란 程度(degree)의 문제가 된다.²⁵⁾

2. 感情移入의 起原, 特性 그리고 過程

(1) 感情移入의 起原

Sullivan(1953)은 感情移入이란 嬰兒(infant)가 他人과의 關係를 시작하면서 갖게 되는 최초의 特性 중의 하나라고 記述하였다. “어머니에게 不安에 대한 緊張感이 있을 때 이것이 嬰兒에게 不安을 일으킨다.”²⁷⁾ 즉, ‘感情移入’을 영아와 모성간의 대인 關係 過程에 適用시켜 사용하였다. Sullivan은 모

성과 영아에게 일어나는 感情移入 現象에 대해 理論的 證據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觀察을 통해서 밝혀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2) 感情移入의 特性

1) 精神分析學的 見解

모성과 영아의 감정이입 과정은 ‘合同(incorporation)’과 ‘退行(regression)’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이론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다.²⁸⁾

출생 한달이나 두달 후 아이는 어머니를 자신으로부터 분리된 하나의 獨立體로 知覺하고, 사회적인 수용 능력이 발달하기 시작한다. 成長함에 따라 합동에 ‘同一視(identification)’가 代置되고, 아이는 自身の 内部에 存在하는 어머니가 사랑과 안락함을 얻기 위하여 模倣해낸 存在임을 경험하게 된다.

‘退行’이란 동일시가 감정이입에 관계하듯이 동일시 과정에 관계된 活動이다. 퇴행을 통해서 과거의 중요한 人物과 同一視할 수 있고, 과거의 즐거웠던 事件, 오래된 친구, 이전의 役割도 되새길 수 있다.

2) 社會心理學的 見解

Cottrell과 Dymond(1949)²⁹⁾는 感情移入이 모든 社會的 相互作用의 基本過程이라고 하였다. Mead는 감정이입을 意思疏通에서의 社會的이고 對人關係的인 機能으로서 反應的(reactive)이기 보다는 適應的(adaptive)이라고 하였고, 그 核心은 ‘役割遂行(role-taking)’이다. 어린이의 역할수행(role-taking)은 사회적 성장과 자아발달, 그리고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學習方法으로 묘사된다.²⁵⁾

위의 두 觀點에서 感情移入의 起原은 說明되었다. 個人이 自我에 대해 갖는 確고한 感覺은 同一視에 따르는 模倣을 통해 獲得되고, 이것은 감정이입을 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한 條件이 된다.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계속 가짐에 따라 다른 사람의 역할을 실제로 경험하고 배우게 되며 自身の 主体성을 잃지 않고서도 他人의 역할을 자유롭게 느낄 수 있게 된다.³⁰⁾

(3) 感情移入 過程의 모델

1) 同一視(identification) : 자아의식을 상실하고 다른 사람의 인격과 상황속으로 몰두되는 과정이다.

2) 合同(incorporation) : 다른 사람을 우리 내부

에서 경험해 보는 활동이다. 동일시는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 속으로 投射하는 것이고, 합동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우리 내부로 들여오는 것이다.

3) 反射(reverberation) : ‘반사’의 과정에서는 내면화된 상대방의 감정과 자신의 경험 혹은 환상간에 相互作用이 있다. Reik(1949)³¹⁾는 이러한 과정을 “두 리듬에 있어서의 振動”이라고 표현했다.

4) 分離(detachment) : 도움을 주는 사람은 자신의 주관적 참여를 거두어 내고 主体를 바로 세운다. 洞察力과 客觀性을 사용하여 대상자에게 유용한 반응을 제공하여 대상자가 스스로의 문제점을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는 시기이다.

3. 感情移入의 造作化

감정이입은 外的으로 形式化된 方法을 통하여 造作化 되어왔다. 方法論에는 감정이입 측정 척도를 사용한 질문지 반응법, 실험실에서 기구를 이용하는 Palmar Sweating Measure, Vasoconstriction Measure가 있다. 우리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질문지 반응법에는 첫째, 도움을 준 사람이 상대방을 이해한 수준을 스스로 판단하여 계속하는 방법(예 : Hogan Empathy Scale(1969), Truax(1961, 1963)의 Accurate Empathy Scale), 두번째, 도움을 받은 사람이 도움을 준 사람의 전달한 이해의 수준에 대하여 측정하는 방법(예 : Barrett-Lennard Relationship Inventory)이 있다.

4. 治療的 道具로서의 感情移入과 看護員을 위한 重要性

感情移入化한다는 것은 대상자의 감정을 경험하고 ‘나눈다(sharing)’는 것을 의미한다. ‘나눈다(sharing)’는 것은 일시적인 것으로 그 屬性은 같지만 감정의 程度는 같지 않을 수 있다.

감정이입은 ‘同情(sympathy)’, ‘同一視(identification)’와 區別해야 한다. 哀悼(condolence), 同意(agreement) 혹은 遺憾(pity)이라는 요소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감정이입(empathy)은 동정(sympath)과 구별된다. 동일시(identification)와 비교해 보면, 동일시는 無意識(unconsciousness)의이며, 永續的인 過程으로서 不安을 克服하는데 目的的인 것이 있는 반면, 감정이입은 前意識(preconsciousness)의이며 一時的인 過程으로 그 目的은 理解하

는데(understand) 있다.³²⁾

감정이입이 대상자를 돕고 이해하는데 유용한이유는 看護員에게 “即刻의인 理解(immediate comprehension)” 혹은 “內面的 知識(inside knowledge)”을 提供하기 때문이다.³³⁾ 대상자를 이해하는데 論理와 智能만을 사용한다면 내부 핵심으로 향한 직접적 접근은 어렵게 된다. 간호원이 갖는 洞察力은 잘 정련된 감정이입 기술을 사용할 때 가능한 것이다.

5. 親愛欲求에 關한 理論的 概念

의학 심리학에 관심을 갖고 性格學을 연구한 Murray(1938)는 인간이 어떻게 다른 인간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가를 설명하는데 있어 그 차이는 欲求(need)의 차이에 있다고 보았다.

Murray(1938)는 성격에 대한 분석(:성격의 욕구 이론)에서 12가지의 臟器 發生的 欲求(生理的 欲求)와 28가지의 心理 發生的 欲求(非生理的인 欲求)의 목록을 제시하였는데 親愛欲求(need-affiliation)는 심리 발생적 욕구의 한 예이다. 그 내용은 관련이 있는 사람과 가까이 하고 즐겁게 協調하거나 交際하고자 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대상을 즐겁게 하고 그의 애정을 얻으려 하는 것, 친구에게 誠實하려고 하는 것 등이다.³⁴⁾ 이러한 욕구는 개인이 의미있는 타인과의 인간관계에서 얼마나 가까이 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경향을 나타낸다고 말할 수 있겠다.

심리학에서 성격의 한 특성으로 다루는 친애욕구(need-affiliation)는 사회 심리학에서 인간의 사회적 행동의 기초가 되는 群集(affiliation)이라는 용어로 이해된다. 인간 군집(affiliation)의 시작은 부모-자녀간의 愛着(attachment)에서부터 발생된다. 인간이 군집하는 이유로 人間の 本能으로써, 生得的 決定要因으로써, 군집하는 것을 學習 함으로써, 欲求를 充足시키기 위하여 군집한다.³⁵⁾

인간의 군집 경향을 增減시키는 要因으로 Schachter(1959),³⁶⁾ Sarnoff & Zimbardo(1961)³⁷⁾는 실험연구 결과 恐怖가 클수록 군집하려는 경향이 크다고 보고하였다. 공포를 느낀 사람이 군집하는 이유는 두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³⁵⁾ 첫째, 자신의 공포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군집한다. 공포는 군집을 增加시키고, 불안이나 상황의 위협은 군집을 減少

시킨다. 두번째, ‘社會的 比較’를 위하여 군집한다. 비교의 대상으로는 자신과 類似한 他人들에 비교하기를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의 내용으로부터 개인적 성격의 한 특성인 親愛欲求(need-affiliation)는 일종의 ‘動機(motive)’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개인에게 주어진 狀況이 좀더 자신과 關聯된 것일 때 社會的 行動으로서의 群集(affiliation)으로 뚜렷이 表現된다고 할 수 있겠다.

Ⅲ. 研究方法

1. 研究對象

서울시내 4년제 대학교육과정중 設立時期와 教育過程이 類似한 2개 대학 간호학과 학생 325명(H대 189명, K대 136명)과 同一 대학내의 자연계열 여학생 378명(H대 189명, K대 189명)총 703명을 집단표집방법(cluster sampling method)으로 표집하였다.

2. 研究道具

1) 感情移入 測定道具

Hogan(1969)²⁰⁾의 感情移入 尺度(empathy scale)를 사용하였다.

그 構成은 CPI(California Psychological Inventory)에서 31문항, MMPI(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에서 25문항, IPAR(University of California's Institute of Personality Assessment and Research)에서 開發한 8문항을 합하여 총 64문항으로 되어 있다. 이 척도는 각 항목에 대하여 「그렇다」, 「아니다」로 반응하는 2분 척도로써, 감정이입 능력의 評定은 「그렇다」의 문항에 「그렇다」로 답하거나 「아니다」의 문항에 「아니다」로 답하면 1점, 「아니다」의 문항에 「그렇다」로 답하거나 「그렇다」의 문항에 「아니다」로 답하면 0점을 주어 合算한다. 감정이입 능력은 이 척도에 의한 반응의 平均치로 나타내며, 측정치가 높을수록 감정이입 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는 일반적인 감정이입적 素因(empathic disposition)을 측정하기 위하여 감정이입의 정의에 基礎를 두고 개발되었다. 감정이입 능력은 다른 사

람의 마음의 상태를 知的 혹은 想像的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따라 자기 보고형으로 측정된다.

도구의 信賴度를 檢定한 결과 $r = .5905$ ($P < .001$) 이었고, $\alpha = .5133$ 이었다. Cronbach의 內的 合致度에서 부정적(negative)인 방향을 나타낸 문항과 점수가 낮은 문항을 除外하고 36문항을 다시 조사하여 $\alpha = .7019$ 를 얻었다.

2) 親愛欲求 測定道具

Mehrabian(1970)²³⁾의 親愛欲求 尺度(Need-Affiliation Scale)를 번안(번안자: 차재호)한 것을 김²¹⁾이 축소하여 사용한 척도로 친애욕구를 측정하였다. 평정은 아주 강한 찬성(+4 점)에서 아주 강한 반대(-4 점)까지의 9점 Likert형 척도로 측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親愛欲求가 높음을 의미한다.

Mehrabian의 척도는 50문항으로 構成되어 있는

데 金²¹⁾은 信賴度 檢査를 거쳐 20문항으로 縮小하였고 신뢰도 계수(KR-20) $r = .802$ 를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7114$ 로 나타났다.

3. 調查 및 分析方法

調查時期 1986年 9月 8日부터 9月 16日까지의 9日間이었다. 표집대상 703명(看護系: 325名, 非看護系: 378名)中 585명(看護系: 279名, 非看護系: 306名)의 질문지(回收率 83.2%)가 回收되었으며 그 중 男學生이 應答한 6部와 不完全하게 應答한 52部를 除外하여 실제 資料分析에 사용된 표집수는 527名(75.0%)이었다.

資料를 分析하기 위하여 百分率, 平均,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등의 統計方法을 이용하였다.

<표 1>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N=527)

특	성	구	분	평	균	표	준	편	차	인	수(%)					
연	령	평균연령		20.4	± 1.5											
		학	년									1 학년	126 (23.9)			
												2 학년	145 (27.5)			
												3 학년	133 (25.2)			
												4 학년	123 (23.3)			
형	제	자	평균	4.0	± 0.6											
			출									생	순	위	첫번째	171 (32.4)
															두번째	134 (25.4)
															세번째	103 (19.5)
															네번째	67 (12.7)
															다섯째이상	52 (10.0)
중	교	있다	284 (53.9)													
		없다	243 (46.1)													
과	거	성	장	지	서울, 부산	303 (57.5)										
					도청소재지, 중소도시	163 (30.9)										
					농어촌, 섬	61 (11.6)										
병	원	입	원	유	무	있다	121 (23.0)									
						없다	406 (77.0)									
전	공	에	대	한	만	족	도	매우 만족한다	61 (11.6)							
								만족한다	258 (49.0)							
								보통이다	184 (34.9)							
								불만이다	24 (4.6)							

(표 2) 간호계 학생과 비간호계 학생의 감정이입 능력

특 성	구 분	인 수	평균(점수)	표준오차	t 값	자유도	유의도
감정이입능력	간 호 계	249	30.623	.253	0.41	525	.682
	비 간 호 계	278	30.471	.265			

* N. S. - Not Significant

(표 3) 간호계 학생의 학년별 감정이입 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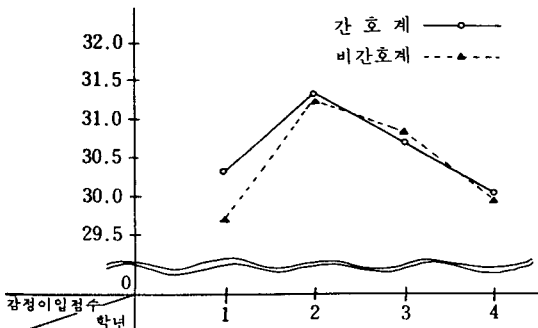
분 산 원	자 승 합	자 유 도	평균자승합	F 값	유 의 도
집 단 간	62.682	3	20.894	1.312	0.271
집 단 내	3901.832	245	15.926		
계	3964.514	248			

IV. 研究結果

1. 對象者의 人口學의 特性

對象者의 人口學의 特性이 (표 1)에 나타나 있다.

平均 年齡 20.4歲였고, 兄弟姊妹數는 平均 4名이었다. 出生順位는 첫번째부터 네번째까지가 대상자의 90%를 차지하였으며, 宗教가 있는 사람은 53.9%였다. 過去成長地에서 서울·부산이 57.5%로 가장 많았고, 중소도시 도청소재지가 30.9%, 농어촌·섬이 11.6%였다. 病院入院 有無에 대하여 入院經驗이 있는 사람이 23%로 나타났다. 專攻에 대한 滿足度를 調査해 본 結果, '보통이다'가 49.0%로 가장 많았고, '不滿足이다' 61%, '滿足한다' 34.9%, '매우 滿足한다' 4.6%의 順으로 나타났다.



(도 1-A) 간호계 학생과 비간호계 학생의 학년별 평균감정이입 점수

2. 假設檢定

1) 제 1 가설

"간호계 학생은 비간호계 학생에 비해 감정이입 능력이 높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정하기 위하여 (표 2)에서와 같이 t-test하였다. 看護系 學生의 平均 感情移入 點數는 30.62, 비간호계 학생은 30.47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t=0.41$, $df=525$, $p=N.S.*$) 즉, 간호계 학생과 비간호계 학생간에는 感情移入 能力에 差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제 1 가설은 지지되지 않았다.

2) 제 2 가설

"간호계 학생에서 학년이 올라 갈수록 感情移入 能力이 높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ANOVA로 分析하였다. 1학년의 平均 感情이입 點數는 30.412, 2학년은 31.324, 3학년 30.771, 4학년 30.000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F=1.312$, $df=3$, $P=N.S.$) 즉, 看護系 學生에서 各學年間에는 感情移入 能力에 差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제 2 가설은 지지되지 않았다. (표 3, 도 1-A)

간호계 학생 집단을 非專攻期(1,2학년)와 專攻期(3,4학년)로 나누어 전공기에 있는 학생이 비전공기에 있는 학생에 비해 감정이입 능력이 높은지 조사하여 보았다. 두 집단을 t-test한 결과 비전공기의 平均 感情이입 點數는 30.868, 전공기는 30.327로 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t=1.06$, $df=247$, $P=N.S.$) 곧, 전공기와 비전공기간에는 感情移入 能力에 差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도 1-B)

〈표 4〉 간호계 학생에서 전공기와 비전공기의 감정이입 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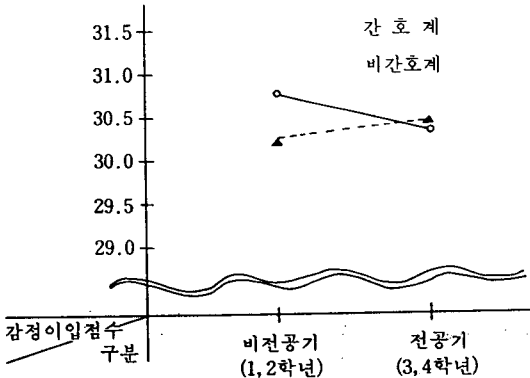
특 성	구 분	인 수	평균(점수)	표준오차	t 값	자유도	유의도
감정이입능력	비전공기	136	30.868	0.358	1.06	247	0.289
	전공기	113	30.327	0.355			

〈표 5〉 비간호계 학생의 학년별 감정이입 능력

분 산 원	자 승 합	자 유 도	평균자승합	F 값	유 의 도
집 단 간	95.405	3	31.802	1.639	0.181
집 단 내	5317.865	274	19.408		
계	5413.270	277			

〈표 6〉 비간호계 학생에서 비전공기와 전공기의 감정이입 능력

특 성	구 분	인 수	평균(점수)	표준오차	t 값	자유도	유의도
감정이입능력	비전공기	135	30.452	0.396	-0.07	276	0.944
	전공기	143	30.490	0.356			



〈도 1-B〉 간호계 학생과 비간호계 학생의 비전공기, 전공기 평균 감정이입 점수

위의 두 결과를 非看護系 學生과 比較하여 보았다. “비간호계 학생에서 학년이 올라 갈수록 감정이입 능력이 높은가?”라는 問題를 提起하고 이를 조사하였다. ANOVA한 결과 1학년 학생의 평균 감정이입 점수는 29.621, 2학년은 31.078, 3학년 30.835, 4학년 29.983으로 나타나 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F=1.639$, $df=3$, $P=N.S.$) 즉, 비간호계 학생에서 각 학년간에는 감정이입 능력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도 1-A)

비간호계 학생을 非專攻期(1, 2학년)와 專攻期(3, 4학년)로 나누어 전공기 학생이 비전공기 학생에

비해 감정이입 능력이 높은지 조사하여 보았다. t-test 결과 〈표 6〉에서와 같이 비전공기 학생의 平均 감정이입 점수는 30.452, 전공기 학생의 平均 점수는 30.49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t=-0.07$, $df=276$, $P=N.S.$) 즉, 비간호계 학생에서 專攻期와 非專攻期간에는 感情移入 能力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1-B)

3) 제 3 가설

“감정이입 능력과 친애욕구간에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라는 제 3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표 6〉에서와 같이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사용하였다. 感情移入 能力과 親愛欲求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r=-.033$, $P=N.S.$) 따라서 제 3 가설은 지지되지 않았다.

〈표 7〉 감정이입 능력과 친애욕구간의 상관관계

친애욕구	감정이입능력		
	전체집단	간호계	비간호계
	-0.0333	-0.0426	-0.0243

3. 感情移入 能力 및 親愛欲求와 諸 要因間의 關係

感情移入 能力 및 親愛欲求에 영향을 미치는 個人的 特性을 確認하기 위하여 年齡, 學年, 兄弟姊妹數, 出生順位, 宗教, 過去成長地, 病院入院 有無, 專攻에 대한 滿足度와의 關係를 分析한 結果는 다음과 같았다.

看護系 學生에서 感情移入 能力과 兄弟姊妹數($r = -0.129, p < .05$)間에는 統計적으로 有意한 關係를 나타내었다. <표 8> 즉 兄弟姊妹數가 많을수록 感情移入 能力이 낮다고 解析할 수 있다.

親愛欲求에 영향을 미치는 個人的 特性을 確認한 結果 看護系 學生에서 專攻에 대한 滿足度($r = .156, p < .001$), 非看護系 學生에서 出生順位($r = -.106, p < .05$)間에 統計적으로 有意한 關係를 나타내었다. <표 8> 즉, 看護系 學生에서 專攻에 대한 滿足도가 높을수록 親愛欲求가 높으며, 非看護系 學生에서 出生順위가 아래로 내려갈수록 親愛欲求가 낮다고 解析할 수 있다.

4. 追加分析

1) 看護系 學生과 非看護系 學生의 親愛欲求의 差異

“간호계 학생과 비간호계 학생에서 친애욕구는 차이가 있는가?”라는 문제를 제시하고 이를 t-test로 검정하였다. <표 9>에서와 같이 看護系 學生의 平均 親愛欲求 點數는 130.233, 非看護系 學生은 131.144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t = -0.82, df = 525, P = N.S.$) 즉, 간호계 학생과 비간호계 학생간에는 친애욕구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看護系 學生과 非看護系 學生의 專攻에 對한 滿足度

인구학적 특성에서 얻어진 자료를 중심으로 두 집단의 專攻에 對한 滿足度의 차이를 t-test 하였다. <표 10>에서와 같이 두 집단간의 平均 수치는 간호계가 2.534점, 비간호계가 2.137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t = 6.41, df = 525, P < .001$) 따라서 看護系 學生이 非看護系 學

<표 8> 감정이입 능력 및 친애욕구와 제요인간의 관계

특성 제요인	집단	감 정 이 입 능 력		친 애 욕 구	
		간 호 계	비간호계	간 호 계	비간호계
형 제 자 매 수		$r = -0.129^*$	$r = -0.024$	$r = -0.024$	$r = -0.075$
출 생 순 위		$r = -0.101$ ($0.05 < p < 0.1$)	$r = 0.022$	$r = -0.089$ ($0.05 < p < 0.1$)	$r = -0.106^*$
전공에 대한 만족도		$r = 0.1026$ ($0.05 < p < 0.1$)	$r = 0.076$	$r = 0.156^{**}$	$r = 0.084$ ($0.05 < p < 0.1$)

* $p < .05$ ** $p < .001$

<표 9> 간호계 학생과 비간호계 학생의 친애욕구

특 성	구 분	인 수	평균(점수)	표준오차	t 값	자유도	유의도
친 애 욕 구	간 호 계	249	130.233	0.836	-0.82	525	0.412
	비간호계	278	131.144	0.736			

<표 10> 간호계 학생과 비간호계 학생의 전공에 대한 만족도

특 성	구 분	인 수	평균(점수)	표준오차	t 값	자유도	유의도
전공에 대한 만족도	간 호 계	249	2.534	0.046	6.41	525	0.000*
	비간호계	278	2.137	0.042			

* $p < .001$

生에 비해 專攻에 對한 滿足度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V. 論 議

1. 假設檢定

(1) 看護系 學生과 非看護系 學生間에 感情 移入 能力

간호계 학생의 감정이입 능력은 30.623 ± 3.998 , 비간호계 학생은 30.471 ± 4.421 로 간호계 학생의 점수가 다소 높았지만 두 집단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Hogan(1969)²⁰⁾이 여대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40.7보다 낮은 점수이다. Macdonald(1977)³⁸⁾는 간호계 학생과 비간호계 학생을 대상으로 감정이입 능력의 차이를 조사한 바, 간호계가 38.7, 비간호계가 40.3으로 비간호계 학생의 점

간호 교육 과정속에 있는 학생들의 학년에 따른 감정이입 능력을 조사한 바, 2학년에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3학년, 그리고 4학년은 1학년에 비해 오히려 낮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그 差異는 유의하지 않았다.

김³⁾은 임상 간호원과 간호 학생 집단의 감정이수가 다소 높았으나 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感情移入은 모든 人間關係 狀況에서 그 수준이나 깊이와 상관없이 일어날 수 있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특별히 간호원은 수혜자와의 관계에서 높은 감정이입 능력을 가지고 양질의 간호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利他的인 專門職으로서의 간호에 대한 교육을 받은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道德的 發達(moral development)을 포함하는 감정이입 능력이 높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제1가설이 설정되었다. 본 가설은 지지받지 못했지만 간호계가 비간호계에 비해 아주 극히 낮은 정도로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는 점은 차후 연구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고 본다. 즉, 현 간호 교육에서 학생들의 감정이입 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한 關心과 理解, 그리고 對人關係 技術을 增進시키기 위한 方案이 강구될 때 그 차이는 더 커지리라 생각된다.

(2) 看護系 學生의 學年別 感情移入 能力

입 능력의 차이를 조사하여 간호 학생이 임상간호원에 비해 감정이입 능력이 높음을 보고하였다. Forsyth⁶⁾는 實務經歷 2年 이하의 간호원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근무 연한에 있어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부정적인 방향(negative correlation)을 나타내었다고 발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新入生의 경우 간호계와 비간호계가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高學年으로 올라갈수록 그 차이는 좁혀지며 거의 같아지는 양상을 나타낸다. 이를 非專攻期와 專攻期로 나누었을 때 그 差異는 더욱 분명히 나타났다. 감정이입의 소인을 갖춘 간호학생이 入學하여 교육을 통하여 그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중에 감정이입에 관한 定意를 분명히 내리고 理論 教育과 訓練 프로그램의 活用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학년별 변화를 분석하였는데 1학년(30.412)에서 2학년(31.324)으로 올라가며 감정이입 능력이 높아진 것은 大學生活의 適應과 더불어 전공에 관한 교육이 시작되면서 학생들의 興味가 집중되고, 士氣가 高揚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에 반해 3학년, 4학년으로 올라가며 오히려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는 이유는 간호 교육이 이론에서 그치지 않아 臨床 實習을 필요로 하는 교육임으로 강의 내용과 임상 실습과의 차질에서 오는 갈등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곧 實習現場의 환경적인 질, 실습시 發生하는 여러 부류의 인간관계, 임상 실습 규정의 엄격성으로 오는 정신적 피로감, 습 분량의 과중등이 요인일 수도 있다.³⁹⁾ 또한 임상 실습 경험 내용에 있어 감정이입 보다는 手技的(technical)내용에 편중되어 경험되는 것도 감정이입 능력이 낮아지는 요인중의 하나로 볼수 있겠 이러한 결과는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올라가면 간호학에 대하여 이해와 적응해 나가는 태도를 이며, 社會參與 그룹활동이 다양해짐에 따라 成된 對人關係를 나타낸다는 한³⁹⁾의 보고와는 相된 결과였다.

학년별 변화를 비전공기와 전공기로 나누어 사한 바 비간호계는 점수의 변화를 거의 보이지만 비하여 간호계에서는 전공기에서 낮아지는 양상을 보여 학년별 推移에 따른 變化를 集約하고 다.

(3) 感情移入 能力과 親愛欲求間의 關係

感情移入 能力에 關여하는 個人的 性格 特性 중 親愛欲求가 가장 크게 作用하리라 생각되어 感情 移入과 親愛欲求간의 關係를 調査하였다. 간호계, 비간호계, 그리고 전체집단에 있어서 感情移入과 親愛欲求是 統制적으로 有意하지 않은 極히 낮은 수준의 逆相關 關係를 나타내었다.

Mehrabian(1970)²³⁾은 親愛欲求 척도를 사용하여 親愛 傾向性(affiliation tendency)은 親愛行動에 關係되고, 거절에 대한 민감도(sensitivity to rejection)는 同調 行動에 關聯된다는 것을 알아내었다. 이렇듯, 親愛欲求是 個人 성격의 일부이지만, 일종의 動機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어떠한 상황이 個人에게 좀더 關連된 것일 때 뚜렷이 表現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實제에 가까운 狀況 속에서 보다 精確히 측정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結果에서는 感情移入과 親愛欲求是 상호 依存的 概念관계가 희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看護領域에서 親愛欲求를 하나의 獨立된 概念으로 받아들여 이에 대한 더 깊이있는 多角的인 연구가 必要하다는 점을 나타낸다. 그러나 比較가 容易한 資料가 缺如되어 있으므로 追後 研究가 必要하리라고 생각되었다.

2. 感情移入 能力과 親愛欲求에 影響을 미치는 變數

Forsyth⁶⁾는 年齡과 感情移入 能力과는 有意한 關係가 없다고 보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이점이 반영되고 있었다.

出生 順位에서 나중에 태어난 아이(later born)는 첫번째이면서 獨子(first and only borns)인 아이에 비해 感情移入을 잘한다는 보고가 있다.⁴⁰⁾ Stotland와 Walsh⁴¹⁾는 統制적으로 有意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태어난 아이가 感情移入을 더 잘한다는 이전의 연구 結果를 支持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간호계 집단이 보인 結果와 類似하였다($0.05 < P < 0.1$) 나중에 태어난 아이는 타인과의 關係에서 그 사람을 자기 가족의 한 구성원인 양 인치하고 같은 운명을 나누었다고 생각하는 傾向이 있으며, 이러한 생각은 인생의 初期經驗속에 자리잡고 있다고 한다.⁴¹⁾

간호계 학생에서 兄弟姊妹數가 많을수록 感情

移入 能力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P < .05$) 비간호계에서도 이러한 傾向이 제시되었으나 統制적으로 有意하지 않았다. 김³⁾의 연구에서는 형제 자매수와 感情移入 能力과의 關係가 有意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追後연구가 必要하리라 생각된다.

專攻에 대한 滿足도와 感情移入 能力간의 關係를 살펴본바 有意있는 關係가 없었다. 그러나 Lesser(1961)⁴²⁾는 感情移入과 自我概念의 向上 사이에는 肯定的인 關係가 있다고 하였고, Dickenson과 Truax(1966)⁴³⁾는 學問的 成就의 向上과 感情移入間에 肯定的인 關係가 있다고 報告하고 있는 것은 反對의 입장이었다.

出生順位와 親愛欲求와의 關係에서 Schachter(1959)³⁶⁾는 실험 연구결과 첫번째는 두번째 보다 親愛傾向이 더 크며, 두번째는 세번째보다 더 강한 傾向으로 進行된다는 사실을 알아 내었다. 이것은 어린이가 養育되어진 방식에 따른 것으로서 첫째들은 더 依存的이며 群集(affiliation)에 대한 恐怖의 影響을 강하게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연구에서는 비간호계학생의 경우 위와같은 傾向이 더 잘 나타났다. ($P < .05$)

專攻에 對한 滿足도가 비간호계에 비해 간호계에서 높은 理由는 오늘날의 社會 現實에 비추어 專門 女性職으로서 就業의 문이 比較적 넓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한다.

VI. 結論 및 提言

本 研究은 感情移入을 中心으로 간호교육과정속에 있는 학생들의 感情移入 能力을 파악하고, 학년에 따른 變化를 살펴봄으로써, 效果적으로 感情移入화하는 과정에 關여할지 모르는 親愛欲求와의 關係를 調査함으로써 바람직한 看護 教育의 基本 資料의 하나를 類推, 提供하고자 하였다.

研究 對象은 서울시내 4년제 대학교육 과정에 있는 2개대학 간호학과 학생 325명과 同一대학내의 비간호계 학생 378명 총 703명으로 1986년 9월 8일부터 9월 16일 사이에 調査하였다.

測定 道具는 感情移入에 關한 64문항, 親愛欲求에 關한 20문항으로 구성된 設問紙를 사용하였다. 分析에 이용된 자료는 배포된 設問紙의 75.0% 인

527매였으며 이는 백분율, 평균,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전산화 처리하였다.

研究 結果는 다음과 같다.

1. 看護系 學生의 平均 感情移入 點數는 30.62, 非看護系 學生은 30.47로 看護系 學生이 극히 낮은 程度로 높은 점수를 보여 주었지만 이 差異는 有意하지 않았다. (P=N.S.)

2. 學年別 感情이입 平均 점수는 2 학년(31.324)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3 학년(30.771) 이었으며 4 학년(30.000)은 1 학년(30.412)에 비해 오히려 낮았고 이들간의 差異는 統計的으로 有意하지 않았다. (P=N.S.)

3. 感情移入 能力과 親愛欲求間에는 극히 낮은 水準의 逆相關 關係를 나타내었으며 統計的으로 有意하지 않았다. (P=N.S.)

4. 感情이입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간호계 학생에서 兄弟姊妹數(P<.05)가 확인되었으며, 친애육구와의 關係에서 간호계의 경우 專攻에 대한 滿足度(P<.001), 비간호계에서 出生順位(P<.05)가 확인되었다.

5. 간호계 학생은 비간호계 학생에 비해 專攻에 대한 滿足度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001)

이상의 결과에서 간호계 학생의 感情이입 능력은 비간호계와 意味 있는 差異를 보이지 않았으며 간호계 학생의 학년별 感情이입 능력은 統計的 聯關性을 나타내지 않았다. 또한 感情이입 능력과 친애육구는 相互 依存的 概念 關係가 稀薄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원과 수혜자와의 治療의 人間關係를 增進시키기 위하여 看護手段으로서의 感情이입 능력 개발을 보다 포괄적으로 看護教育過程에 包涵시켜 質的, 量的으로 간호학생에게 涵養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提言하고자 한다.

(1) 간호계와 비간호계의 感情이입 능력에서 차이가 없었던 이유를 인간의 人性(personality) 및 測定道具(instrument)의 측면에서 接近해 보는 반복연구를 제안한다.

(2) 간호교육과정에 포함시킬 수 있는 感情 이입 능력 개발을 위한 方案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생각한다.

(3) 感情이입 능력이 높은 간호원이 실제로 看護現場에서 質적인 看護行爲를 遂行하는지 評價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4) 실제 病棟에서 언제, 어떻게 感情이입이 일어나는지 조사하는 행동 목록을 통해 관찰 연구를 제안한다.

(5) 感情이입에 關여하는 心理的, 專門職業의 측면에서의 變數를 규명하는 연구는 의미있을 것이다.

(6) 우리나라 看護實務現場에서 사용될수 있는 한국판 感情이입 측정도구 製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7) 간호학 전공 학생 選拔시 適性 檢査의 일환으로 感情移入의 素因을 측정하는 것도 의미있으리라 생각한다.

參 考 文 獻

- 1) Gazda, G. M., Asbury, F. R., Balzer, F. J., Childers, W. C. and Walters, R. P., Human Relations Development, (Boston: Allyn & Bacon Inc., 1977)
- 1) Carkuff, R., Helping and Human Relations: A Primer for Lay and Professional Helpers, Vol. 1, "Selection and Training", (New York Holt, Rinehart and Training, 1969), p. 173
- 3) 김은희, "간호원과 환자관계에서 感情이입에 關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1982)
- 4) Forsyth, G. L., "Analysis of the Concept of Empathy: Illustration of One Approach", Adv Nurs Sci, Vol. 2, No. 2, (1980), pp. 33-42
- 5) Rogers, C. R., "The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s of Therapeutic Personality Change", J Consulting Psychol, Vol. 21, No. 2, (1957), pp. 95-103
- 6) Forsyth, G. L., "Exploration of Empathy in Nurse-Client Interaction", Adv Nurs Sci, Vol. 2, (1979), pp. 53-61
- 7) Northouse, P. G., "Interpersonal Trust and Empathy in Nurse-Nurse Relationship", N. R., Vol. 28, No. 6, (Nov.-Dec., 1979), pp. 365-366
- 8) Mansfield, E., "Empathy: Concept and Identified Psychiatric Nursing Behavior", N. R., Vol.

- 22, No. 6, (Nov.-Dec., 1973), pp.525-530
- 9) Truax, C. B., et al., "Therapist Empathy, Genuineness, and Warmth, and Patient Therapeutic Outcome", *J Consulting Psychol*, Vol. 30, No. 5, (Oct., 1966), pp.395-401
 - 10) Brunclik, H., et al., "The Empathy Inventory", *Nursing Outlook*, (June, 1967), pp.42-45
 - 11) Guerne, B., Stover, L. and Demeritt, S., "A Measurement of Empathy in Parent-Child Interaction", *J Genetic Psychol*, Vol.112, (1968), pp.49-55
 - 12) Davis, M. H., "Measur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Evidence for a Multidimensional Approach", *J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44, No.1, (1983), pp.113-126
 - 13) Gagan, J. M., "Methodological notes on Empathy", *Adv Nurs Sci*, Vol.5, No.2, (January, 1983), pp.65-72
 - 14) Speroff, B. J., "Empathy is Important in Nursing", *Nursing Outlook*, Vol.4, No.6, (June, 1956), pp.326-328
 - 15) Kalish, B. J., "An Experiment in the Development of Empathy in Nursing Students", *Nurs Res.*, Vol.20, No.3, (May-June, 1971), pp.202-211
 - 16) Eggert, L. L., "Challenge Examination in Interpersonal Skills", *Nursing Outlook*, Vol.23, (1975), p.707
 - 17) Kahn, G. S., Cohen, B. and Jason, H., "The Teaching of Interpersonal Skill in U. S. Medical School", *J. O. M. E.*, Vol. 54, (1979), pp.29-35
 - 18) 이혜성 역, 완전한 카운슬러, (서울:이화여자 대학교 출판부, 1982), pp.96-100
 - 19) Kalisch, B. J., "What is Empathy?", *American Journal of Nursing*, Vol. 73, No.9, (Sep. 1973), pp.1548-1552
 - 20) Hogan, Robert, "Development of an Empathy Scale", *I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33, No.3, (1969), pp.307-316
 - 21) 김주희, "지적 접촉과 환자교육이 수술후 동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84)
 - 22) 장영수, "가상적 사회상황에서 삼자관계의 지각과 친애욕구와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84)
 - 23) Mehrabian, A.,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Measure of Affiliative Tendency and Sensitivity to Rejection",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Vol.30, (1970), pp.417-428
 - 24) 차재호, 친애척도, (서울:전인교육연구소, 1984)
 - 25) Katz, R. L., *Empathy-its nature and uses*, (London: Collier-Macmillan Limited, 1963)
 - 26) Stetler, C. B., "Realationship of Perceived Empathy to Nurses' Communication", *Nurs Res*, Vol.26, No.6, (Nov.-Dec. 1977), p.432-438
 - 27) Sullivan, H. S., *The Interpersonal Theory of Psychiatry*, (New York: W. W. Norton and Co., 1953), p.41
 - 28) Freud, S., *Group Psychology and the Analysis of the Ego*, (New York: Bantam Books, 1960), pp.51-53
 - 29) Cottrell, L. S. & Dymond, R. A., "The empathic responses: A neglected field for research", *Psychiatry*, Vol.12, (1949), pp.355-359
 - 30) Ehmann, V. E., "Empathy: its origin, characteristics, and process", *Perspectives in Psychiatric Care*, Vol.9, No.2, (1971), p.72-80
 - 31) Reik, T., *Listening with the third ear*, (New York: Farrar, Straus and Co., 1949), p.470
 - 32) Greenson, R. R., "Empathy and its Vicissitudes",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Vol.41, (1960), pp.418-424
 - 33) Fleiss, R., "The Metapsychology of the Analyst", *The Psychoanalytic Quarterly*, Vol.11, No.2, (1942), pp.211-217
 - 34) 이훈구역, 성격심리학, (서울:법문사, 1986), pp.181-218
 - 35) 홍대식역, 사회심리학, (서울:박영사, 1986), pp.67-92
 - 36) Schachter, S., *The Psychology of Affiliation*, (Calif: Stanford, 1959)
 - 37) Sarnoff, I. & Zimbardo, P. G., "Anxiety, fear, and social affiliation",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Vol.46, (1961), pp.356-363
 - 38) Macdonald, M. R., "How do Men and Women Students Rate in Empathy?", *American Jour-*

- nal of Nursing, Vol. 77, (June, 1977), p. 998
- 39) 한정석, "간호대학생의 학년별 태도변화에 관한 연구", 간호학회지, Vol. 3, No. 2, (1973), pp. 121 - 129
- 40) Stotland, E. & Dunn, R. E., "Empathy, Self-Esteem, and Birth Order", J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Vol. 66, No. 6, (1963), pp. pp. 532 - 540
- 41) Stotland, E. & Walsh, J. A., "Birth Order and an Experimental Study of Empathy", J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Vol. 66, No. 6, (1963), pp. 610 - 614
- 42) Lesser, W. M., "The Relationship Between Counseling Progress and Empathic Understand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 8, (1961), pp. 330 - 336
- 43) Dickenson, W. A. and Truax, C. B., "Group Counseling with College Underachievers",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Vol. 45, (Nov., 1966), pp. 243 - 247

<ABSTRACT>

Comparative Study on the Empathic Ability Between Nursing and Non-Nursing Students

Choi, Sun Ha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Hanyang University

The term "nursing" is often defined as a therapeutic and interpersonal process that ultimately functions to help clients. In the process of helping, empathic ability (ability to entering into the another's feeling or motives) is an essential factor that has been proved in the fields of psychology and social psychology. In the sense, nursing personnel with high level of empathy is required to accomplish the comprehensive nurs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1) to investigate empathy between nursing and non-nursing students, (2) to examine changes of empathic ability in accordance with their academic years, and (3) to show relationships, if any, between the two concepts, empathy and need-affiliation.

For the survey, 325 respondents for nursing department and 378 from non-nursing departments were randomly selected from the two universities in Seoul. The instruments used in this questionnaire survey method were Hogan's Empathy Scale and Mehrabian's Need-Affiliation Scale, each of them has established its validity and reliability in many different people and settings.

For the analysis, descriptive stative statistics were mostly used by calculating frequencies, percentages and mean scores. T-test, analysis of variance and correlation coefficient were employed to test the differences and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

- (1)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empathic ability between the nursing and non-nursing student
- (2) The levels of empathy among the nursing students, surprisingly enough, were negatively correlated with their academic years, even though statistical significations was not found. The scores of the empathy are somewhat dropped as academic year going up.
- (3) No significant relationship was revealed between empathy and need-affiliation.

In conclusion, the results of the study repeatedly support the claim that the nursing education must empathize and, also, include the programs that enable nursing students to develop the ability of empathy for their clients.